

# 친환경 에코 마그네슘 상용화

에치엠케이 · HK하이텍 · 금강코엔 생산 ... 육불화황 발생 억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에코 마그네슘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마그네슘 관련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느는 육불화황(SF<sub>6</sub>)을 없앤 에코 마그네슘(Mg) 소재를 세계 처음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11월29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CO<sub>2</sub>) 대비 2만4000배에 달하는 육불화황 때문에 그동안 마그네슘은 친환경 소재로 분류되지 못했다.

그러나 에코 마그네슘이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주도로 2009년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양산까지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내장부품 소재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장은 LG전자의 아레나 맥스폰, 삼성전자의 노리폰 모델 등 휴대폰 생산라인에서 에코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는 에코 마그네슘 양산을 기념하기 위해 서초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구매 확대 및 탄소배출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식을 열어 에코 마그네슘 양산과 관련된 에치엠케이, HK하이텍, 금강코엔, 한라케스트 등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9년 기준 354만대인 국내 휴대폰 생산량의 10%가 에코 마그네슘으로 대체되면 연간 12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9>